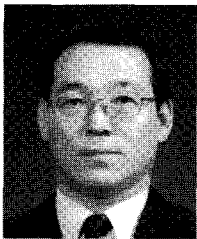




# 농산물 물류표준화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최도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시장에서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표준패킷트 출하 등 물류표준화 및 현대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 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유통 효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의 수송 하역시 유통효율 및 기계화를 제고 시키기 위해 1997년도 국가물류표준화 정책의 일환인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 : Unit Load System)에 맞도록 한국산업규격(KS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66개 모듈)로 농산물의 포장규격을 정비한 바 있으며, 농산물의 포장화 및 표준규격화를 위해 매년 국고 보조금 500여억원을 표준규격농산물의 출하조직 및 사업자에게 포장재비, 상차비 일부

WTO출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오렌지, 키위, 포도 등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산 과일 소비가 감소되는 등 국내

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3년 기준 농산물의 포장화율이 86.5%로 배추, 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장화가 되었으며, 표준규격포장율도 53.7%로 우리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산물의 포장규격은 한국산업규격 기준, 유통의 편리성, 폐기물처리문제, 소비자선호도,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소비자의 소포장 구매 선호도를 반영하여 소포장재 규격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규격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표시등급, 산지, 생산자 또는 출하자, 브랜드 등 표시사항만 보고도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산지의 출하 전 지도 및 공영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품질 평가를 강화하여 신용거래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포장재비 등 농산물표준규격화사업비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